즉시 배포용: 2017 년 12 월 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뉴욕주의 신규 HIV 진단 사례가 사상 최고치로 떨어졌으며, 차별을 방지하고 HIV 예방약 구입의 보험 적용을 보장할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

조정된 공중 보건 전략으로 인해 뉴욕주에서 새 HIV 감염 사례수가 9% 감소

일부 보험사가 PrEP 보험 적용에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불만사항을 반영한 새 보험사 DFS 지침 - 보험사 회람장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새로 HIV 진단을 받은 주민의 수가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새 HIV 감염 사례 수가 9%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아울러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모든 적용 대상 뉴욕 주민들이 HIV 감염 예방에 사용되는 처방약인 사전예방약(pre-exposure prophylaxis, PrEP) 구입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별적 이유로 PrEP 보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침은 일부 보험사가 PrEP 보험 적용에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불만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HIV 퇴치를 선도하는 국가적 리더로서의 뉴욕주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전례없는 성공을 거두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HIV/AIDS 위기의 진원지로서, 우리는 뉴욕주에서 이 질병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전염을 줄이며 전 세계가 따를 수 있도록 HIV/AIDS 퇴치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관점에서 질병을 퇴치하려는 적극적인 공중 보건 사업 덕분에, 국가 선도적 목표를 달성하고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한때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 갔던 HIV 감염률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 사례 감소는 공중 보건의 힘을 확실히 입증하였으며, HIV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Maria T. Vullo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사는 차별적 이유에 기반하여 의약품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HIV 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PrEP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전무합니다. DFS 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의 처방이나 보험 적용에 있어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년, 뉴욕주의 신규 HIV 진단 사례는 2,881 건으로, 이는 2015 년 3,163 건보다 9% 감소한 수치입니다. 해당 진단 감소율은 뉴욕주 2014 년 전염병 퇴치 이니셔티브(Ending the Epidemic Initiative)로 이어지는 지난 5 년 동안의 감소율(매년 평균 4% 이하)의 두 배 이상입니다.

HIV 에 불평균정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 모두 상당한 신규 진단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기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신규 진단율은 2015-2016 년 사이 12%(1,804 건에서 1,580 건)로 떨어졌으며, 지난 10 년간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 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진단율은 모든 연령 그룹에서 감소했으며, 20-24 세(505 건에서 406 건) 청소년 그룹이 20%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색인종 지역사회의 HIV 진단율 또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은 백인 비 히스패닉계(11%), 흑인 비 히스패닉계(7%), 히스패닉계(11%), 다인종 배경(23%)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새로운 HIV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뉴욕주의 동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DFS 는 PrEP 보험 보장을 막는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없애고 모든 뉴욕 주민이 PrEP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보험사에 배부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보험사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에 기반하여 PrEP 보험 보장을 요청하는 주민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HIV 에 걸릴 위험이 높은 HIV 음성인에게 처방대로 약을 복용할 경우 HIV 감염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PrEP 를 처방합니다.

오늘 발행된 지침에는, DFS 는 PrEP 사전 승인 요건을 도입할 때 보험사는 약물 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의 보험 보장 범위에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허가를 도입할 때, PrEP 동시 또는 소급 사용 검토, 보험사 및 사용 검토 기관은 의학적 필요성 검토 시 적절한 서면 임상 검토 기준을 적용하여 뉴욕 보험법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아울러, 보험 적용 결정을 내릴 때 보험사와 사용 검토 기관은 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가 PrEP 보험 보장을 거부하고 특정 개인에게 의학적으로 해당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피보험자는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 적용 거부에는 뉴욕주 보험법에 명시된 정보(거부 이유 및 임상 근거 포함), 피보험자가 해당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 항소 판결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회람장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using Works, Inc.의 대표 및 CEO Charles King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2020 년 말까지 뉴욕주에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입니다."

Hispanic Health Network 창립자 겸 라틴계 AIDS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 의장인 Guillermo Chacó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 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에이즈 전염병 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지역사회/정부/민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전염병의 종결 방식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낙인/차별을 건강 평등을 달성할 중요한 방법으로써 다루어야 합니다. 시급한 과제는 젊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 기타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유색인종 남성(MSM), 유색인종 여성, 트랜스젠더, 성별 규범을 따르지 않는 지역사회 및 마약을 사용하는 개인과 같이, HIV 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취약하며 가장 많이 감염된 지역사회를 2020 년 말까지 에이즈 전염을 종식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C. Virginia Fields 전국 AIDS 흑인 리더십 위원회(National Black Leadership Commission on AIDS)의 의장 겸 CE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 년 세계 에이즈의 날인 오늘은 크게 기념할 일이 많습니다. 에이즈 예방,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언젠가는 곧 에이즈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노력을 통해 이러한 성공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2020 년 말까지 HIV 감염률을 현저하게 줄이고 최초로 HIV 보급률을 낮춘다는 Cuomo 주지사님의 2014 년 이니셔티브에 기반합니다. 현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HIV 신규 진단 사례는 그 해 HIV 신규 진단율 3,448 건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미확정으로 남아 있는 HIV 보유자를 식별하고 건강 보험과 연결;
- HIV 로 진단받은 사람을 의료 서비스와 연결 및 유지시켜 HIV 치료를 받도록 해 HIV 바이러스 억제 극대화.
- 고위험군 환자가 HIV 음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약(PrEP)을 사용하도록 함.

2014 년 발표 이후, 뉴욕주는 전염병 퇴치 이니셔티브(Ending the Epidemic Initiative)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2,000 만 달러 이상의 추가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해당 정책에는 간소화된 HIV 테스트, 용이한 주사기 교환, 미성년자의 HIV 예방 및 치료 서비스 동의 합법화, 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확대, HIV 감염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뉴욕주는 PrEP 과 PEP(사후예방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덕분에, 에이즈 고위험군 중 PrEP 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주로서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PrEP 보조 프로그램(PrEP Assistance Program, PrEP-A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보험자의 수는 지난 18 개월 동안 600% 증가한 반면, 메디케이드에 등록한 주민의 PrEP 의 처방은 4 배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바이러스 억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감독 데이터와 매칭함으로써, 뉴욕주는 억제되지 않은 바이러스 보균자 6,000 명 이상을 식별하였습니다. 메디케이드 관리 의료 플랜은 이들 중 다수를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여 그 중 40% 이상의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새 이니셔티브는 2020 년 말까지 AIDS 사망률 제로 및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한 HIV 감염률 제로 목표를 세울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